

해남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내년 준공

해남군은 두륜산권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삼산면 구립리 두륜산케이블카 맞은편에 1만5299㎡ 규모로 조성되는 '생태 힐링파크'는 두륜산의 지리환경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체험놀이시설과 힐링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두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스릴도 즐길 수 있는 카트레이싱·사계절 썰매장·빛의 터널 등 조성 가족단위 관광객 위한 체험·힐링 공간 마련

카트레이싱·사계절 썰매장·빛의 터널 등 조성 가족단위 관광객 위한 체험·힐링 공간 마련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

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군은 상반기 실시설계 및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해 내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시 대흡사, 두륜산 케이블카, 두륜 미로파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두륜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천년고찰 대흥사를 품고 있는 곳으로, 자연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이라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 김동주 기자

영암 유기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적 지급

영암군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택시·화물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기연동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로 5월 1일부터 유류세가 20%에서 30% 인하됨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1당 59원(466원→407원)이 추가 인하되지만, 유가보조금도 53원(239원→186원) 인하되어 운송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경유를 사용하는 차주들의 유류비 보존을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하여 경유 가격이 1당 1,850 원 이상 상승 시 초과분의 50%가 지원되며(1당 최대 183.21원),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 중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받을 차량은 약 1,0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의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유류 구매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시에 유가 연동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이 청구된다.

/영암 김형두 기자

강진 마량늘토수산시장 개장… 5000여명 인파 북적

4400만원 매출 기록 순조롭게 출발…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지난 7일 마량항 중랑포제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마량늘토수산시장 개장 행사장이 전국 각지에서 온 관객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로 2년간 휴지기를 갖고 3년 만에 문을 연 마량늘토수산시장 개장식 날 5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4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행사는 개회사 및 축사, 늘토수산시장 입점업체 대표(손성은, 김양아)의 '3最 다짐·3無 약속' 실행 선언문

남도, 성공기원 퍼포먼스, 목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 특히, '뿐이고'를 부른 박구윤, '빠이빠이야'의 소명 외에도 요요미, 정삼, 이청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각종 개장 이벤트로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마량늘토수산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8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액 9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7일 개

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강진 청자축제기간을 합쳐 모두 30회内外로 운영한다.

운영 및 판매 부스는 6종 30개소이다. 횟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 좌판 7개소, 견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 음식 코너 6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할머니장터 10개에서 다양한 수산물과 길거리 음식, 지역 농특산물 등 연중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 장산도 '화이트뮤지엄' 내일 개관

장산동분교장 재탄생… 개관 기념 '장산에 살어리랐다' 전

신안군은 11일 장산면 팽진리 옛 장산동분교장에 '장산화이트뮤지엄'을 개관한다.

장산화이트뮤지엄이 들어서는 장산동분교장은 1962년 개교해 2008년 문을 닫았다. 대지면적 1만9319㎡(약 5854평), 건축면적 1268㎡(약 384평)로 한때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한 큰 학교였다.

신안군은 2018년 학교부지를 매입해 건물 2개동 14개 교실에 전시공간,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 넓고 쾌적한 수장고 등을 갖췄다.

또한 교사숙소로 사용하던 부속건물 2개동은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레지던스로 바꿔 예술가들이 장산도 주민을 위한 교육과 창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산화이트뮤지엄은 개관을 기념해 '장산에 살어리랐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전시에는 총 1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장산 출신 한국화가 정호 김동신, 서예가 죽전 송홍범, 서양화가 정창경 등 예술가 39인의 작품 101점과 목포에서 인쇄 사업을 하면서 지역예술 후원을 아끼지 않은 죽립의 컬렉션이 초대돼 박상광·오승우·김영자 등을 포함한 10인의 지역내외 작가작품 13점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신안 박정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완도 노화자율방범대 이·취임식

신임 박재웅 대장 취임

완도 노화읍 자율방범대는 지난 3일 노화읍 건강테마촌 2층에서 제 13·14대 방범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내 전임 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박재웅 신임 대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돼 제14대 노화자율방범대 박재웅 회장을 필두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박재웅 방범대장은 취임사에서 "노화자율방범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격려와 노화읍민들의 응원과 함께 그리고 방범대원들의 열정으로 새로운 향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방범대의 명예를 걸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기초 질서 지키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박회장은 "생각하는 봉사

가 아닌 실천하는 봉사'라는 슬로건 속에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의 도량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노화읍방범대를 이끌어주신 김영내 대장님과 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방범대를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큰 기둥이 되시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화읍 방범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공동체의 주역이 된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가정이 마음속에 피어날 것"이라며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 속에 방범대가 발전된다는 것을 염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화읍 방범대장 이·취임식에는 노화읍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무안 일로읍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준공

방치 폐철도부지 3km 주민 건강 활력공간 재탄생

무안군은 최근 일로읍~회산백련지를 연결하는 총 3km의 폐철도부지에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영산강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공사를 준공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 재포장, 회전교차로 보행과 도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개발촉진지구 국비 72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로 곳곳에는 수목, 공원, 산책로, 원두막, 파고라, 하트그네 의자, 야외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꽃과 나무를 느낄 수 있도록 35종 4만2천여 수목을 식재했고 최근 멘탈얼짱을 반영한 300m 길이의 맨발산책로

는 건강생활도로만의 독특한 공간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월암리, 용산리, 산정리 3구간으로 나눠 건강을 테마로 한 걷고 싶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무인의 대표적 관광지 회산백련지와의 관광 네트워크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야간 관계없이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 화장실, 가로등, 경광조명 등 편의 시설과 운동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보행로만 조성된 산정리 구간에는 현수문 등, 마을학교 참여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도로를 가꿔나갈 계획이다.

/무안 박태연 기자